

브라질 정부, 중·소형차 IPI 세율 인하

- 지난 8월 1일, 브라질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·소형 자동차의 공산품세(IPI) 세율을 일부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음.
- 이에 따라, 동일자를 기해 배기량 1,000~2,000cc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차량은 종전 25%에서 16%로, 알콜 차량은 14%로 IPI세율을 인하하였음.
- 또한 배기량 1,000cc 이하의 소형차(국민차)는 휘발유 차량인 경우 9월까지 종전과 같은 세율인 10%를 적용하고, 그 후부터 9%로 인하되며, 알콜 차량의 경우는 8월 1일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키로 하였음.
- 2,000cc 이상되는 대형차 중 휘발유 차량은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, 알콜 차량의 경우에만 종전 25%에서 20%로 인하되었음.
- 정부의 IPI 세율 인하에 따라, 국내 자동차 조립업체들은 시중 판매가격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바, 피아트의 경우 9~11.06%, GM은 7.78%, 포드는 8.4% 등의 자동차 판매가를 인하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, 포드와 피아트, GM, 폴크스, 시트로엔, 푸조 등 국내 6대 자동차 조립업체들의 평균 판매가 인하율은 6.83%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.

(자료원 : 상파울루 사무소)

문의 책임연구원 김영석 (☎ 3779-6653)
전문연구원 최성규 (☎ 3779-6665)